

광주 제조업 '침체의 늪'...위니아전자 법정관리 신청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량 감소에 협력업체도 타격 121곳 경기전망 8분기째 '흐림'...57.9% "목표 미달"

광주지역 제조업계에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라-우크라 전쟁이 풀고 온 경기침체 여파가 가시질 않고 있는 데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광주 산업의 큰 축인 건설업계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운데, 또 다른 주력 산업인 가전업계와 반도체 역시 소비위축에 따른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는 지난달 20일 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니아전자는 광

주에 공장을 두고 김치냉장고 등을 생산하고 있는 가전기업이다.

앞서 위니아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다시피 했고, 임금 체불 및 생산직 사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해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위니아전자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300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만큼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가 위축, 가전업

계가 불황에 빠지면서 삼성전자의 가전 전초기지가 불리는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에 있는 삼성전자 지역 협력업체들도 수주물량이 감소해 타격이 큰 상황이라는 게 지역 제조업계의 설명이다.

광주의 한 가전기업 관계자는 "수주물량이 40% 상당은 줄어든 것 같다"며 "협력사를 비롯해 지역 가전업계의 상황이다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먼저 문을 닫게 될지 눈치도 보게 될 정도다"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날 광주상회의가 광주지역 12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88'로 집계됐다. 8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면서 경기침체

의 늪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완화로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과 소비위축, 글로벌 제조업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원자재가 변동성 확대, 고물가 현상까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지역 제조업계의 체감경기 개선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올 3분기 실적 역시 '71'로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등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부정적 여건이 계속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설문에 응답한 지역 제조업계의 절반 이상(57.9%)은 연초에 세운 목표 대비 올 한해 영업이익 목표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 '미달'할 것이라고 봤다. 목표 수준 달성은 37.1% 수준으로, '목표수준 초과달성'은 5.0%에 머물렀다.

'목표수준 미달'로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수판매 부진'(48.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여파가 지역 제조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서는 '해외시장 경기둔화로 수출감소'(35.7%), '고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 상승'(5.7%), '원부자재 수급 차질'(4.3), '환율, 유가 변동성 심화'(2.9%) 등 순이었다.

광주상의 측은 "생산원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고물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원자재 안정, 세계 개선지원, 수출금융 및 물류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창업기업 10곳 중 7곳 5년 못버틴다

5년 후 생존율 33.8% 그쳐...OECD 평균보다 11.6%p 낮아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33.8%로 OECD 평균인 45.4%보다 11.6%포인트 낮았다.

생존율은 2020년 기준이며 OECD 평균은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5개년 생존율을 발표한 28개국의 평균이다.

OECD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스웨덴의 5년 후 생존율이 63.3%로 가장 높고 이어 벨기에(62.5%), 네덜란드(61.9%), 룩셈부르크

(55.4%), 오스트리아(53.7%), 그리스(53.3%), 프랑스(50.8%), 슬로베니아(50.6%), 미국(50.2%) 등 순이었다.

28개국 중 26개국이 한국보다 높고 포르투갈(33%)과 리투아니아(27.2%) 두 곳만 한국보다 낮았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을 업종별로 보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22.3%에 그쳤고 숙박·음식점업도 22.8%에 불과했다. 창업기업 5곳 중 1곳은 5년 후 살아남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얘기다.

생존율은 사업지원서비스업(26.8%)과 도·소매업(29.7%)도 20%대였고 교육서비스업(30.2%),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35.8%)은

30%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조업이 42.8%로 집계됐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55.4%로 50%를 넘었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평균 33.8%라는 것은 결국 5년차 기업의 폐업률이 66.2%라는 뜻으로 10개 기업 중 6개는 창업 5년 이후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발굴 노력에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업종 간 폐업률의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지탱하는 제조업의 폐업률이 57%를 기록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보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우윳값 올랐다...빵·아이스크림 줄인상 우려

이달부터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지난 1일부터 흰 우유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오르면서다.

3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유업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ℓ)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 3% 올렸다.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가격은 2900원대로 3000원 수준까지 오르게 됐다.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을 4~6% 올린다. 가공유 제품은 5~6% 오르고 발효유와 치즈 제품 가격은 6~9% 상향 조정된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인 맛있는우유GT(900ml) 출고가를 4.6% 인상하고, 다른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올렸다.

동원F&B도 유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빙그레는 오는 6일부터 채널에 따라 순차적으

로 흰 우유 제품인 굿모닝우유(900ml)와 바나나 맛우유(240ml) 가격을 5.9%씩 올릴 예정이다.

유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낙농진흥회는 이달부터 원유 기본 가격을 ℓ당 88원(8.8%)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올해는 원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데다 인건비, 에너지비용,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흰 우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각 업체는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해 흰 우유 1ℓ (또는 900ml) 제품 가격을 대형마트 기준 3000원 미만으로 결정했다.

이달 우유 가격 인상 이후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작년에도 원유 값 인상 여파로 유업체들이 우유 제품을 약 10% 올려 빵 가격을 6%대, 아이스크림 가격은 20%대로 각각 올렸다.

/김민석 기자 mskim@

논콩의 힘? 산지 쌀값 80kg 20만원대 회복

논에 벼 대신 콩 심어 생산 줄여 농림부 "올 수확기 가격도 유지"

지난해 80kg짜리 한 가마에 20만원을 밀었던 산지 쌀값이 20만원대를 회복했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5일 80kg에 평균 20만688원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달 15일 기준으로도 평균 20만1464원을 기록하면서 20만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16만원대와 비교하면 20% 넘게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산지 쌀값 하락은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과 비교해 1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작년 10~12월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45만t을 매입한 데 이어 쌀 45만t을 추가로 구매해 쌀 9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한 바 있다.

정부 구매로 산지에서 쌀 재고가 감소해 지난 5월 이후 산지 쌀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농촌경제연구원 측의 설명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는 목표를 제시하고,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논에 벼 대신 콩, 가루 쌀 등을 심어 쌀이 적정량 생산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정책에 따라 실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0만 8000ha로, 작년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쌀 생산량은 370만t으로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올해 10~12월 수확기에도 산지 쌀값이 80kg에 20만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평년 수확기 산지 쌀값인 19만8604원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평년값은 2018~2022년 10~12월 쌀 가격에서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전기차 할인 더 받으세요

연말까지 EV세일페스타...EV6 484만원·니로 EV 344만원 등

기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부 전기차 모델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EV세일페스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EV세일페스타는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진행된 다.

EV6(사진)의 경우 제조사 할인 320만원과 추가 정부 보조금 64만원을 더해 총 384만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니로 EV와 니로 플러스는 제조사 할인 120만원에 추가 정부 보조금 24만원을 더해 총 144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월별 채고 할인까지 더해 경우 EV6는 최대 484만원, 니로 EV와 니로 플러스는 각각 344만원, 444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기아는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

기아 전용 구매프로그램인 'E-라이프 서포트' 할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아 전기차 전자중에 대해 최대 60개월까지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하여 선수율 50% 이상인 경우에는 ▲36개월 기준 3.0% ▲48개월 기준 3.5% ▲60개월 기준 4.0%의 특별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레이 EV와 EV9에 대해서도 기아는 전기차 구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V9 차량을 출고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게는 1년차 충전요금(100만원 상당)을 결제할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한다.

레이 EV의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가격 15만원 할인 및 15만원 캐시백을 통해 6개월차 충전요금(3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 백화점 신관 영업종료 이벤트

9일까지 '신백멤버스 페스타'

(주)광주신세계는 오는 9일까지 '신백멤버스 페스타'를 진행한다. 3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0일 백화점 신관(이마트) 영업종료에 따른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연중 최대 규모로 마련했다.

먼저 전(全) 브랜드 합산 신세계 제휴카드도 당

일 30·60·100만원 이상 구매시 신백리워드를 최대 7% 증정한다.

행사기간 식품·생활·패션브랜드에서는 일별 한정 특가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또 15일까지 10~30% 할인 행사를 전개한다.

30% 세일 브랜드로는 스피치오, 손정완, 아이잔 바바, 미니멈, 온앤온, 본, 윤현궁, 세사 20%는 메트로시티, 닥스, 금강, 벨리시앙, 예고이스트, 올리브데올리브, 블루루, 데팜, 버커루 등이 참여한다.

대형 브랜드 행사도 전개한다. 본관 지하1층 행사장에서 4일까지 보브와 지켓, 톰보이가 참여하는 'SI 그룹전'을 전개한다.

또 같은 장소에서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톰보라운과 알리지, 오일리리 등 해외 유명 브랜드, 모피 특집전을 전개한다.

백화점 신관(이마트) 영업종료로 백화점 본관에도 변화를 준다.

신관에서 영업 중인 스포츠, 아웃도어, 이지 상품군들이 본관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리뉴얼 오픈 및 신규 브랜드도 다수 선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기침체 탓? 만원권 발행 3년만에 최고치

올 추석 전 한국은행이 지역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발행액 중 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과 금액이 최근 3년 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폐공급액도 줄었는데, 경기 악화로 현금을 찾거나, 핫타라도 소액권인 만원권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추석 명절 전 10일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은 4524

억원으로 지난해(4567억원)와 견주 0.9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 발행액은 3398억원으로 2021년 4682억원, 2022년 3980억원보다 감소한 반면, 1만원권은 1233억원으로 2021년(1010억원), 2022년(797억원) 보다 많았다.

권종별로 보면 오만원권 발행비중이 71.9%로 지난해(81.1%)에 비해 9.2%포인트 감소한 반면, 만원권 비중(26.1%)은 지난해(16.2%)보다 9.9%포인트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